

철학사

18 중기 및 신플라톤

주의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오늘 오후에는 중기 플라톤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중기 플라톤주의는 우리 선집에 전혀 실려 있지 않고 슈툼프의 저서에서도 다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며칠 후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사상의 발전, 신학적 입장과 논쟁의 전개, 그리고 기독교와 후기 신플라톤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기 플라톤주의는 기원후 첫 두 세기를 대표하는 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다른 두 사상 흐름, 특히 로고스를 강조하는 스토아주의와 플라톤주의가 융합된 사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자연계를 질서짓는 신성한 법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피타고라스주의, 특히 그들의 발출 개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 보죠.

역사적으로 그 시점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원론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플라톤에 대한 이원론적 해석을 보면, 물질은 형상이 생겨나는 근원적이고 창조되지 않은 혼돈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이원론적 해석은 악의 문제에 대한 함의를 지닙니다.

당시 다양한 영지주의에는 훨씬 더 명확한 이원론이 존재합니다. 물질을 악, 또는 적어도 악의 근원으로 명시적으로 여겼고, 정신 또는 이성을 선으로 여긴 다양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신성한 로고스와 창조의 선함에 관한 글에는 이원론과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 외에도 스토아주의에는 헤라클리토스가 주장했던 이중적 측면 이론이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자연을 변화의 과정으로 보았고, 그들 중 일부는 헤라클리토스처럼 근본적인 물질을 불타는 증기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물론 로고스입니다. 질서 정연함, 법칙에 따라 지배되는 사물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향하는 다양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기 플라톤주의가 플라톤주의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이원론에서 유일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개의 궁극적 실재나, 실재의 양립 불가능한 두 측면이 아니라, 다양성이 비롯되고 또한 되돌아가는 하나의 포괄적인 실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이원론에서 유일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신피타고라스 학파의 발산론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였습니다. 신피타고라스 학파 자체는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특정 신피타고라스 학파와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을 사실상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알비누스라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를 신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부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중기 플라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유사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신에서부터 그 반대 극단인 비존재에 이르기까지 존재의 정도와 완전성이 다양한 위계질서를 개념화했습니다.

다양한 중간 존재들이 존재하는 위계질서. 사실, 인간계와 신계 사이에도 중간 존재들이 있다. 다양한 정도의 완성도와 불완전함을 지닌 여러 종류의 힘들이 존재한다.

존재의 위계라는 개념은 사실상 중세 시대를 지배하는 개념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위계적 개념이 비롯된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교회와 사회 구조뿐 아니라 철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까지 일부 기독교 사상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틈이 없는 존재의 위계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대 할 곳이 없습니다. 공실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능한 모든 존재의 단계를 아우릅니다. 이러한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AO 러브조이의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울지도 모릅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한 60년, 70년쯤 됐을 거예요. AO 러브조이가 쓴 '존재의 위대한 사슬(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책이죠.

특히 역사와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 중 서양 사상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개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AO

러브조이의 『존재의 대사슬』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위계질서는 신의 초월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땅과 지상의 피조물들(인간 포함)을 질적으로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 사상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플라톤의 신은 너무나 초월적이어서 지상의 존재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우주의 외곽 너머에 존재하며, 효율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지상의 존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토아 학파로부터 계승한 로고스 교리를 통해 임박성을 보존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 교리를 기억해 두세요. 스토아 학파에게 로고스는 신성한 이성 이었습니다 .

포괄하고 스며드는 어떤 합리적이고 불변하는 원리일 것이다 . 그래서 로고스 의 씨앗, 로고이 스페르마 티코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

로고 의 씨앗은 모든 사물 속에 심어 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고의 씨앗이 모든 곳에, 도처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힘으로 신적 존재는 모든 자연물과 모든 지상의 과정에 내재합니다. 이러한 로고스, 즉 정자 로고스가 내재하는 형상과 동일시되는 한에서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대해 말할 거라고 예상하셨겠지만, 이제는 티마이오스에 암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후기 플라톤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사물을 그릇 안으로 가져온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즉, 형태들이 신성한 로고스의 씨앗, 로고스 정자가 됨으로써 임박성과 초월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은 이제 존재의 전체 위계질서에서 한 단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서는 개가 인간에게 걸맞은 완벽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 인간은 고등한 존재에 걸맞은 완벽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는 그 이치에 맞게 살지 않는 이들도 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인간 존재의 형식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내재된 능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결핍, 즉 선의 결핍입니다. 의도된 선, 실현된 형태의 결핍입니다. 따라서 이원론과의 단절, 즉 일원론이 어떻게 개입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주장은 범신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로고스가 신성하다면, 즉 로고스가 신적 존재로부터 발산된 가장 고귀한 형태라면, 로고스가 신성하고 만물에 스며들어 있다면, 적어도 신성이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것처럼 들리고, 물질이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없는 한, 신성은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범신론인 셈입니다.

나중에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중기 플라톤주의, 즉 신플라톤주의는 상당히 범신론적 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랬듯이 기독교가 중기 플라톤주의를 수용하면서, 그들은 이 발산설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은 신과 창조물 사이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밝혀진 차이점은 발산이라는 개념 대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그 차이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발산이란 무엇일까요? 그 단어 자체는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흘러나오는 것이죠.

분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나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연 세계가 신성한 존재의 발현이라면, 그것은 바로 신성한 존재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자연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은 이원론, 즉 영지주의의 이원론, 신플라톤주의의 범신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유신론 사이의 구별입니다. 이원론은 만물이 영원한 물질, 즉 *ex materia* 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범신론은 만물이 *ex deo*, 즉 신의 본질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다른 세계관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사상의 초기 5~6세기는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기 플라톤주의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중기 플라톤주의는 그들이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고스 덕분에 신은 만물 안에 내재하는 형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형상들이 로고스의 씨앗이고 로고스가 하나님의 발출된 이성이라면, 형상들의 궁극적인 지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관념들입니다. 이것은 티마이오스에서 암시적으로 언급됩니다.

데미우르고스는 형상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한 좋기를 바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형상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데아가 되므로, 신은 이제 단순히 형식적 원인이나 자연의 존재 목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 정자(logoi spermaticoi)의 작용을 통해 자연이 생겨나고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고, 가장 높은 발현체인 로고스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토-테오스(Proto-Theos), 즉 최초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데우테로스 -테오스(Deuteros -Theos), 즉 두 번째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교도 중기 플라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신성 안에 존재들을 구분하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사실, 그들 중 한두 명은 신성한 로고스에 세계 영혼을 더하여 프로토-테오스, 데우테로스 -테오스, 그리고 세 번째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교적인 맥락에서 나온 기독교 이전 시대의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이 초기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기 시작하는 데 개념적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기 플라톤주의가 확산된 동기는 철저히 이교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밝혀두어야겠네요. 사실, 3세기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교 신앙을 살리기 위해 중기 플라톤주의를 널리 퍼뜨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플라톤주의는 이교 신들을 다른 중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신, 원초신, 로고스 외에도 인간보다 우월한 온갖 종류의 중개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교도 신들입니다. 따라서 이교도 종교가 이러한 중개자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중화된 우화적 방식으로 자리 잡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교도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대인 철학자이자 플라톤주의자로 흔히 알려진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는 중기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로고스, 즉 세계 영혼을 바로 이러한 중기 플라톤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이 발전 과정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대학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세미나에서, 정확히 어떤 맥락이었던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윤리학과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떤 종류의 인격신 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글쎄요, 삼위일체적인 존재 같은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업에는 늘 한두 명쯤은 있는, 잘난 척하는 대학원생이 "도대체 왜 그렇죠?"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고대에는 신성 안에서 하나와 여럿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죠." 참고 자료요? 바로 이 논쟁입니다.

플라톤이 신으로 의인화한 선한 객관적 가치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은 이 간극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2권(deuterios) 을 제시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선을 가장 중요시하는 신성 론. 이는 초기 교회가 삼위일체 논쟁에서 받아들인 개념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철학적 토대가 기독교의 삼위일체 논쟁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성한 로고스 에 관한 기사에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사는 현재 비공개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이 3세기에 신플라톤주의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되는 인물들은 암모니우스 사카스, 포르피리우스, 그리고 플로티누스입니다. 그중에서도 플로티누스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 그는 아홉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여섯 세트, 즉 '아홉 편'이라는 뜻의 '에네아드' 를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엔네아드, 아홉 개의 엔네아드. 여섯 개의 엔네아드. 포르피리우스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개는 그의 사상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포르피리우스의 가르침은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중기 플라톤주의자이자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교리학교의 일원이었던 암모니우스 사카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언급되었듯이, 2세기와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는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이교도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일종의 기독교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철학 수업. 수업 다른 여러 가지 면 에서도 ,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학문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당시 사람들이 고전 전통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열렬히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는 바로 그러한 인문학이 실천되던 곳이었습니다. 암모니우스 사카스도 이 학과 의 일원이었습니다.

2차 문헌에서 상반된 보고가 나오기는 하지만, 암모니우스 사카스가 한때 학생이었고, 어쩌면 오리겐과 같은 시기에 공부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학과에서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한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암모니우스 사카스는 후에 알렉산드리아와 기독교 신앙을 떠나 자신의 가르침을 이어갔는데, 이것이 포르피리우스와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플라톤주의는 알렉산드리아 학과를 거치면서 기독교화된 중기 플라톤주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플라톤주의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이전의 중기 플라톤주의로의 회귀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신플라톤주의의 중요성은 단지 그 기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원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알렉산드리아 학과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신플라톤주의의 중요성은 11세기와 12세기까지 중세 사상을 지배했던 철학적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19세기 유럽에서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네. 플라톤주의의 역사와 역사는 20세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후대 역사에서 플라톤주의라고 하면 플라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신플라톤주의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용어가 플라톤주의를 가리키는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문맥을 살펴 봐야 합니다 .

때로는 플라톤, 때로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인물은 무수히 많습니다. 존 밀턴의 작품을 읽다 보면, 그의 신학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신플라톤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기독교적 해석은 신플라톤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플라톤 주의 철학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거기에서 초기 중기 플라톤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도 발산과 삼위일체를 가진 존재의 위계질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위계질서의 최상위, 즉 신을 좀 더 위에 두는 게 좋겠네요.

바로 그 사람. 그래. 계층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위계질서 아래에는 올라가미 가 있습니다 . 말하자면 지성, 로고스죠.

지능 아래에 세계의 영혼이 있다.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알겠습니다

.

보시다시피, 저 세 가지 요소는 이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이 발산과 관련된 위계질서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중기 플라톤주의 때문입니다. 중기 플라톤주의가 발산론을 신플라톤주의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영혼 으로부터 유한한 영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육체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위계질서의 가장 아래 단계로 내려갑니다.

이 하강 운동은 발산 입니다 . 하지만 이 하강 운동이 신성한 존재가 점차 소멸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피스트로페라고 알려진 병행 운동입니다. 즉, 회귀를 의미합니다 . 에피스트로페는 그리스어로 '회심', '되돌아감' 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발산은 흘러나가는 것이고, 회귀는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적 언어는 오늘날까지도 특정 종류의 신비주의 언어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원회귀의 신화처럼 말이다.

보시다시피, 그런 표현들은 신플라톤주의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흘러나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일원론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그 하나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범신론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엘리아 학파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기억 하시죠?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리토스 같은 인물들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정말 다양한 사상을 제시했죠.

엘리아틱 학파처럼 변화와 다원성 모두 순전히 환상 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라는 맥락 안에서 변화와 다원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의 세계 와 영원하고 불변하는 형태의 세계가 존재하죠.

그 관계는 무엇일까요?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지 나요? 연결 고리는 무엇일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발산, 즉 에피스트로페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 전해진 플라톤주의의 형태입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중기 플라톤주의를 거쳐 신피타고라스 전통에서 유래한 발산론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외부로의 움직임 때문에 마치 하나가 끊임없이 새들을 등지 밖으로 밀어내는 효율적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동시에, 에피스트로페는 그 존재가 모든 것이 향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 있어 신은 물질적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 원인인 거죠.

로고스에 의한 형식적 원인. 궁극적 원인. 그리고 플로티누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알겠죠? 에피스트로페라는 용어가 좀 모호하고 애매하게 들린다면, 플라톤의 '신에 대한 사랑', 즉 '선에 대한 사랑'에서 그 개념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로움을 강조하면서 별들의 영혼은 경이로움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했죠.

알겠죠? 최종 인과관계라는 개념 말이에요. 네, 그 모든 게 영원회귀라는 개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인 거죠 .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플로티누스가 하나, 누스, 세계 영혼, 유한한 영혼과 육체, 악의 문제 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분할선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분할선 말입니다.

보이지죠 ? 겹쳐 보세요. 위쪽 절반에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이 있습니다

.

여기에 시간의 것, 특수한 것,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론적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면 , 플라톤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제기 해야 합니다 . 어떻게 선천적 지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영혼이 세계 영혼 의 씨앗 이라는 사실 덕분에 , 그 자체는 전지전능한 누스 (nous)로부터 발산된 것이다 . 따라서 선천적 지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변증법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플라톤주의의 수정된 버전입니다.

자, 이 세 위격은 플로티누스가 부른 이름입니다. 위격들. 여러분 중에 삼위일체 교리의 신학적 정립에 대해 충분히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5세기 후반에 나온 칼케돈 공의회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세 위격이 있다고 합니다.

단일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들을 세 위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플라톤주의의 표현이다.

오우시아 안에 세 가지 실체가 있다 . 오우시아 란 무엇인가 ? 존재. 본질

.

하나의 본질을 지닌 세 개의 위격. 이것이 신플라톤주의의 언어입니다. 위격(Hypostasis)은 라틴어 번역 과정에서 페르소나(persona)로 번역 됩니다 .

그래서 영어에서는 person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라틴어 persona는 배우가 자신의 역할,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역할이나 가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지죠?

위격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신조의 언어는 히포스타시스(hypostasis)와 오우시아(ousia) 입니다 .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실제로 어휘, 즉 어느 정도 개념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유래한 이 어휘들은 후대에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형상의 지위가 하위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세계 영혼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통일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실재를 강조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완벽한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영향이 엿보입니다. 왜 통일성일까요? 통일성과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통일성이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보세요. 만약 당신이 여섯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진 다중 정신분열증 환자라면 말이죠.

보시다시피, 만약 당신 안에 어떤 의미에서 '나'와 '너'가 존재한다면 , 당신은 절대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플로티누스가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가장 진실된 존재 방식, 가장 완전한 존재 방식, 존재의 완벽함, 아름다움 그 자체이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초월하는 것. 왜 정의를 초월하는 걸까요 ? 무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무언가와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하나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정의할 다른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존재로 생각 해야 합니다 . 게다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술어, 모든 속성은 유한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에게 적용한 속성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물을 구별하는 표식이며, 신에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서술을 초월하십니다 .

더욱이,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분 자신의 생각조차도 초월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물에 대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생각할 대상이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만약 하나님이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생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부에는 구별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일 수 없게 됩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하는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그 한 분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겠어? 질문하는 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배리, 너 방금 뭐 물어보려던 참이었잖아. 손 흔들고 있었지? 아니, 배리가 아니라... 응, 크리스.

네. 네. 네, 기독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이야기하자면... 음, 먼저 삼위일체에 관해 말씀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우시아' 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위격이 모든 속성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등등의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질이란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신플라톤주의에서 '존재', 즉 '우시아' 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 그 자체,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인 '존재 그 자체'는 하나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개념과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존재를 묘사하거나 정의할 수는 없지만, 존재를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즉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입니다! 이 이상을 말하는 것은 존재와 존재를 구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다지 도움이 되는 답변은 아니지만, 신플라톤주의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플로티누스는 "사실, 하나는 존재를 초월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별하거나, 존재와 생성을 구별하기 위해 '존재' 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요 ? 그리고 만약 존재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존재를 초월한다면 , 그는 그런 것들을 전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에게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 한 , 그는 존재가 신을 초월하고, 선함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 구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낙시만더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아낙시만더를요? 탈레스, 아낙시만더, 아낙시메네스? 기억나세요? 아낙시만더 시대에는 존재의 근본 본질을 아피론 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피론은 무슨 뜻일까요? 무한함? 정의할 수 없음? 이해 되시나요? 마치 하나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것 같죠. 아 피론 말이예요 .

부정적 길로만 알 수 있다 . 부정적 길이란 무엇일까 ? 부정적인 길이다.

네, 부정적인 의미로요. 말할 때 부정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신은 유한하지 않아요.

하나는 여럿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한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불멸하고, 보이지 않고. 불멸하고, 보이지 않고.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좋아요, 그럼 1박자에 맞춰서 그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몇 시죠? 3,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이성, 지성은 어떠세요?

이해 가능한 원리. 음, 아시다시피, 이것은 말하자면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로부터요.

자, 이 발현, 이성, 사고 속에서, 마치 신적인 존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처럼, 스스로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들은 로고스의 마음속에, 누스의 마음속에, 신성한 지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적 존재의 가장 고차원적인 발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적 존재를 온전히 지혜롭고 온전히 선한 존재로 말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상향이기 때문입니다.
형태들이죠.

차별화된. 신의 마음속에서. 세계 영혼에서, 이것은 유한한 사물에
스며들어 질서를 부여하고, 보존하고, 인도하는 역동적이고 생명을 주는
활력 넘치는 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적 존재의 효율적 원인, 자연의 효율적
원인은 세계혼입니다. 형식적 원인은 누스(nous)입니다. 목적적 원인과
물질적 원인은 하나입니다.

세계 영혼이 그 과정의 역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효율적
원인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스와 세계 영혼의 역할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플라톤을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작품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의 본질이야말로 우리가 한동안 꼼꼼이
생각해 봐야 할 난제입니다.